

[1 ~ 3] 다음은 학생들이 실시한 표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에 교복이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교복 착용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이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토론 논제는 ‘교복 착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입니다. 이번 토론은 표준 토론 방식에 따라 입론, 반론, 최종 변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상대방에 대한 예절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단은 토론자의 발언 내용을 평가하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을 듣겠습니다.

찬성 1: 저희는 교복 착용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입을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같은 옷을 입게 되고, 따라서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교복 입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이 10년 전 학교 구성원 간의 민주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입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교복을 입는 것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1: 저희는 교복 착용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래에게 옷은 스스로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교복만 입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의 개성과 자율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게다가 교복은 보통 옷보다 비싼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학교 밖에서는 거의 입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지 학교에서만 입기 위해 옷을 사는 것은 부모님들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사회자: 이어서 반론을 듣겠습니다.

반대 2: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교복 착용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수 학생들은 교복을 입어도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찬성 2: 저희 또한 간섭 받고 강요받는 것은 싫습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 중에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개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것보다, 교복을 입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제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측 발표자께서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토론에서 ‘사회자’가 수행한 역할이 아닌 것은?

- ①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토론 방식과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③ 토론회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참여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 ⑤ 토론에 필요한 핵심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2. ‘반대 2’의 발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측 주장을 요약한 후 근거를 활용하여 반박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감정적 측면에 호소하여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고 있다.
- ③ 찬성 측 주장을 정리하며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자료 출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다.
- ⑤ 찬성 측이 제기한 쟁점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찬성 측의 최종 변론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최종 변론은 상대방 주장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왜 타당한가를 말하는 단계이다. 이때 토론 과정에서 유리했던 내용을 강조하되, 토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롭게 들어 변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① 반대 측에서 교복이 민주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되었음을 반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재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하자.
- ② 반대 측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했으므로, 교복은 애교심의 상징임을 들어 감정적인 부분에 호소하자.
- ③ 반대 측에서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자.
- ④ 반대 측에서 옷차림을 통해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개성과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자.
- ⑤ 반대 측에서 교복 구입 비용이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복을 입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자.

[4~5] 다음은 텔레비전 인터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안녕하세요, 김현정 선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텔레비전 인터뷰는 처음이시라고요?
선 수: 네. 지금 너무 떨려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행자: 저처럼 인터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도 할 때마다 떨려서 심호흡을 크게 여러 번 하고 물을 마십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 수: 네. ㉠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신 분 말씀이니 믿고 해 보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물을 마시고는) 정말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네요.
진행자: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은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군요. 제가 앞자리에서 손수건 건넨 거 기억하시죠?
선 수: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 손수건 정말 고마웠습니다.
진행자: 많은 분들이 그때 심정이 어땠을지 궁금해 합니다.
선 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진행자: ㉡ 표정을 보니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선 수: 제가 인생의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무거운 심봉을 들어 울리며 보냈잖아요. 그 힘든 시간들이 눈앞을 스치더라고요.
진행자: ㉢ (고개를 가웃거리며) 심봉이요? 심봉이라는 게?
선 수: 아, 심봉은 역기 가운데 손잡이 부분인데요. 저희 역도 선수들은 역기를 들어 올린다는 말 대신 심봉을 들어 올린다고 하거든요.
진행자: 네, 그렇군요. 이제 은퇴를 하셨으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선 수: 일단 하고 있는 공부를 끝내고 유소년 스포츠 재단을 세워 역도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네. ㉣ 이미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워 놓으신 걸 보니 평소 김 선수의 성격이 얼마나 꼼꼼한지 알겠네요. 김 선수가 선수 시절에 보여 준 열정과 능력이라면 그 일도 분명히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떨린다고 하셨는데 떨지 않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선 수: 방송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 아무래도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찻집이라 그런지 마음이 차분해져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었어요.

4. 위 인터뷰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에서 화자의 경험 및 전문성이 청자가 받아들이는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비언어적인 표현의 이해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이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구두 언어를 통해 화자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인터뷰를 수업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내린 평가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A~E는 담화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진행자의 담화'를 각 항목에 따라 평가해 보세요.

['진행자의 담화' - 상호 작용 적절성 평가]

- A.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고려하였는가?
 -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을 제시하였다. ①
- B. 상황의 공식성을 고려하였는가?
 - 대중들이 시청하는 담화이므로 상대방의 직업에 관련된 질문만 하였다. ②
- C.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였는가?
 - 인터뷰 경험이 없는 상대방의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③
- D. 담화의 유형에 어울리는 말하기 태도를 고려하였는가?
 - 상대방의 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④
- E. 담화의 목적을 고려하였는가?
 - 시청자가 알고 싶어 할 만한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하였다. ⑤

6. 학생이 '원문'을 읽고 '요약문'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원문】

미세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수중 단세포 생물로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도 불린다. 미세조류를 높은 밀도로 배양하여 처리하면 기름, 즉 바이오디젤을 얻을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미세조류에 관한 연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미세조류는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소비하는 환경 친화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미세조류로 만든 바이오디젤은 연소 시 석유에 비해 공해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환경 친화적인 특성이 있다. 또 미세조류는 옥수수, 콩, 사탕수수 등 다른 바이오디젤의 원료와 달리 식용 작물이 아니어서 식량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세조류로 만든 바이오디젤이 석유에 비해 두 배 가량 비싸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이 문제가 극복되면 미세조류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요약문】

미세조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식용 작물이 아니어서 식량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그러므로 경제성을 갖추게 된다면 미세조류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려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삭제한다.
- ②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원문의 중심 내용을 순서를 바꾸어 제시한다.
- ③ 원문에 사용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자기 말로 바꿔 쓴다.
- ④ 연결어미와 접속어를 활용하여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한다.
- ⑤ 유사한 내용은 압축하여 간결하게 제시한다.

[7~8] <보기 1>은 논설문을 쓰려는 학생의 생각이고, <보기 2>는 활용하려는 자료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보기 1 > —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늘어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를 보았어.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글을 쓰려고 해. 그러려면 우선 유기 동물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해야겠지. 그리고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분석하여 애완동물 유기를 막을 방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글을 써야겠어. 개인의 노력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도 참고가 될 거야.

— < 보기 2 > —

(가) 통계 자료(2011년)

1. 유기 동물 발생 수(단위: 마리)

전국	개	고양이	기타	계
	57,902	39,195	1,171	98,268

2. 유기 동물의 처리 내역(단위: %)

안락사	분양	자연사	주인 반환	기타	계
27	25	19	8	21	100

(나) 설문 조사 결과

1.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 경로는?(단위: %)

가게에서 마음에 들어 구입함	58
주위에서 얻음	23
기타	19

2.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는?(단위: %)

단순 변심(싫증 나서)	33
돌보기 힘들어서(질병, 비용, 문제 행동 등)	24
주거 환경 변화(결혼, 출산, 이사 등)	21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	10
기타	12

7. <보기 1>과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글쓰기를 계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 제 문	○ 늘어나는 애완동물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자.
논 거 자 료	○ 유기 동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 ○ 애완동물을 버리는 이유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 ① ○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자료 ○ 동물 유기 규제 제도를 실시하는 외국의 사례 ②
내 용 구 성 방 향	○ 서론: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실태를 바탕으로 논의의 필요성을 밝힘. ③ ○ 본론 1.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함. ④ 2. 유기 동물의 발생 원인을 분석함. 3. 분석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함. ⑤ ○ 결론: 애완동물 유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8. <보기 2>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 - 1에 전년도 자료를 추가해, 둘을 비교하여 유기 동물이 늘어나는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② (가) - 2를 논거로 활용할 때에는 유기 동물의 종류를 밝혀야 한다.
- ③ (나) - 2에서 '주거 환경 변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제도적 요인으로 묶어서 제시한다.
- ④ (나) - 1과 (나) - 2의 선후 관계를 바꿔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 ⑤ (나) - 1은 애완동물을 키워본 사람들, (나) - 2는 동물 보호 단체의 회원들의 입장을 드러내는 근거로 사용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 다음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자.



김홍도, 「타작도」

[과제 수행 기록]

오늘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대한 감상을 글로 써 보는 것이었다. 그림이 풍속화인 점을 고려하여 「타작도」에 드러난 조선 시대 농촌의 생활 모습에 대한 감상을 주제로 하여 글을 써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작품의 인상적인 부분들을 포착하여 각각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담은 글을 써 보았다.

[학생의 글]

김홍도의 「타작도」는 조선 시대 농촌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 조선 시대는 화가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먼저 그림 가운데에는 통나무를 사이에 두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그려져 있다. 이 개상을 둘러싸고 가을이 되어 ㉡ 추수해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이 신나 보인다. ㉢ 농부들 사이에 놓인 그 통나무는 '개상'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에 곡식 낱알을 떨어내는 데 사용한 일종의 탈곡기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그림 왼쪽에서 곡식단을 개상에 힘껏 내리치려는 농부의 모습도 역동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그림의 오른쪽 위에는 술병을 ㉣ 앞에서 두고서 비스듬히 기대 누워 있는 양반이 그려져 있다. 일하는 농부들을 거들지 않고 누워 있는 양반이 알뜰게 보이기도 하고 게을러 보이기도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작가 김홍도는 한 장의 그림 속에 농촌의 어느 가을 하루를 포착하여 담아냄으로써 조선 시대 서로 다른 계층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제를 포함한다.
- ②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다.
- ③ 대상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작품과 비교한다.
- ④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대상에서 받은 교훈이 드러나도록 한다.
- ⑤ 대상의 몇 부분을 선정하여 그에 대한 감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② ㉡은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앞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 ④ ㉣은 조사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앞에'로 바꾼다.
- ⑤ ㉤은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이 때문에'로 바꾼다.

11. <보기>는 표준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보 기 >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ㄷ, ㄷ, ㄷ), ㄴ(ㄴ, ㄴ, ㄴ, ㄴ, ㄴ), ㄹ(ㄹ, ㄹ, ㄹ, ㄹ,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ㄴ, ㄷ, ㄹ,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국밥[국궂], 옷고름[온꼬름], 옆집[엇집]

제24항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ㄴ, ㄷ, ㄹ'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예 앓고[안꼬], 더듬지[더듬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예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 ① '덮개'는 [덱개]인가요, [덱개]인가요?
- ② '갈등'은 [갈등]이 아니라 왜 [갈똥]인가요?
- ③ '낱설다'는 [남설다]인가요, [남썰다]인가요?
- ④ '머금다'는 [머금다]가 아니라 [머금따]가 맞나요?
- ⑤ '남기다'는 [남끼다]가 아니라 왜 [남기다]인가요?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우리말에서 용언을 활용할 때 어미 '-아/-어'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물다'는 '물아'로, '물다'는 '물어'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ㅑ'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에는 '-어'로 적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글맞춤법 규정은 이 원칙에서 벗어난 형태를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① 하다 ② 되다 ③ 보다 ④ 꺾다 ⑤ 배다

13 <보기>에서 문장을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문장의 기본 구조 안에서 호응하는 문장 성분끼리 잘 어울려야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예1)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 문제는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 ㉠

(예2)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 중 많이 차지한다.
→ 책상이 너무 커서 자리로 많이 차지한다..... ㉡

(예3)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일을 차분하게 해라.
→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일을 차분하게 해라..... ㉢

(예4)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도록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
→ 그는 비록 몸은 고단하면서 마음만은 행복해 보였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보기>를 참고하여 사동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문장은 ‘주동문’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문장은 ‘사동문’이라고 해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이거나, ‘-게 하다’, ‘-시키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예문을 보면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 예]
ㄱ. 개가 밥을 먹다. → (철수가) 개에게 밥을 먹이다.
ㄴ. 그가 집에 가다. → (영희가) 그를 집에 가게 하다.
ㄷ. 동생이 학교에 입학하다. → (어머니께서) 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다.

- ① ㄱ~ㄷ 모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려면 새로운 주어가 필요하군.
② ㄱ~ㄷ에서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되는군.
③ ㄱ의 주동문은 ㄷ처럼 ‘-시키다’를 붙여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겠군.
④ ㄴ의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면 집에 가는 주체가 달라지는군.
⑤ ㄴ의 주동문은 사동 접사를 붙여서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없겠군.

1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보 기 > —

‘엄마가’의 ‘엄마’, ‘떡다’의 ‘떡-’과 같이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하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각각의 어근이 지닌 원래 의미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 어근의 의미만 유지되는 경우, 제3의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다.

- ① 점심으로 오징어 덮밥을 먹었다.
② 늦봄의 따운 햇볕이 내리쬘었다.
③ 동생이 돌다리를 건너 집으로 왔다.
④ 안개비가 연기가 깔리듯 자욱이 내리기 시작했다.
⑤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구멍가게가 사라지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학생이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물·근·마·를 혼고·빅·미·술·홀·아·나 호르느니
:긴·녀·를 江村(강촌):애:일:마·다 幽深(유심):호·도·다
잘·로·가·며·절·로·오·느·닌·집·우·히·저·비·오
서로·親(친)·호·며·서·로·갓·잡·느·닌·물·가·운·뒷·골·머·기·로·다
- 초간본 『분류두공부시언해』(1481년)에서
(현대어 풀이)
맑은 강 한 굽이가 마을을 안아 흐르는데
긴 여를 강촌에 일마다 그윽하구나.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이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구나.

[학생의 정리]		
※ <보기>에 드러난 중세 국어의 특징		
물·근·마·를	→	떠어쓰기를 하지 않음. ①
미·술	→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자음과 모음도 사용함. ②
아·나	→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가 보임. ③
:긴·녀·를	→	방점이 표시된 글자가 있음. ④
저·비	→	현대 국어와 형태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어휘가 있음. ⑤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삶은 긴장과 이완의 교차와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삶을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하는 음악에서는 여러 방식을 통하여 긴장과 이완을 작품에 구현한다. 이 때 긴장과 이완을 보다 조화롭게 음악에 녹아들게 하면 연주하거나 감상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에 친숙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동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악보를 통해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선율의 상승과 하강을 통해 긴장과 이완이 구현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을 대할 때 긴장을 느끼게 되고 그 원리에 순응하는 것을 대할 때 이완된다. 선율이 상승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악보의 첫 마디부터 마지막 마디의 첫 음까지 진행될 때 긴장을 느끼게 된다. 이때 상승한 음과 상승전의 음 사이의 높이 차이가 크다면 긴장의 느낌이 더욱 강해진다. 반면에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선율의 하강 부분에서는 이완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는 완만할수록 이완의 느낌이 강해진다.

긴장과 이완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리듬의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다. 악보의 높은음자리표(♩) 부분을 보면, 선율이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모티프(♩)가 네 차례 나온다. 그런데 두 번째 마디까지는 모티프가 한 마디에 한 번씩 나오지만, 세 번째 마디 안에서는 두 개가 조급하게 이어진다. 즉 모티프를 촘촘하게 배치함으로써 가속도를 붙여 긴장을 느끼게 한 것이다. 또 낮은음자리표(♭) 부분을 보자. 여기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리듬만 살펴보면, <궁작작작 궁작작작 궁작궁작 궁작작작>이라는 진행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두 번째 마디까지는 한 마디에 큰박자 '궁'이 한 번씩 나오는 반면 세 번째 마디에서는 한 마디에 두 번 나온다. 이 역시 음악을 몰아가는 느낌을 주어 긴장감을 더해 준다. 하지만 마지막 마디에서는 다시 처음 리듬으로 돌아가 이완의 느낌을 갖게 해 준다.

* 모티프(motif): 음악 형식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보통 둘 이상의 음이 모여서 이루어짐.

17. 윗글에 표제와 부제를 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긴장과 이완의 의미
 - 악보와 연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 ② 음악적 원리의 형성 과정
 - 리듬 속에 나타난 긴장과 이완을 중심으로
- ③ 악보를 구성하는 요소
 - 긴장과 이완의 조화를 중심으로
- ④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음악적 요소
 - 선율과 리듬의 조화를 중심으로
- ⑤ 음악에서 긴장과 이완의 구현 방식
 - 선율과 리듬의 활용을 중심으로

18. 윗글을 읽고 <보기>를 접한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린 송아지가'보다 높은 음으로 되어 있는 '부뚜막에 앉아'를 부를 때 긴장이 더 느껴지겠군.
- ② 첫째 줄을 부를 때 선율로 인한 긴장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은 제일 높은 음인 '어'이겠군.
- ③ 둘째 줄 첫 마디의 '엄마-'를 부를 때 '마'에서 '-'로 진행하는 동안 선율에서 오는 긴장감이 커지겠군.
- ④ 둘째 줄 두 번째 마디의 '엄마-'를 부를 때 음이 갑자기 높아지는 '엄'에서 선율에 의한 긴장을 강하게 느낄 수 있겠군.
- ⑤ '엉덩이가 뜨거워'를 부를 때 선율에서 느껴지는 긴장의 이완을 경험할 수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시계 바늘의 이동 거리로 보여 준다. 이는 시간의 경과를 공간화한 것으로, 사람들은 시계를 통해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혹은 낭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시계의 시간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성된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다.

하지만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 주지 못한다. 가령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놀이동산에서의 10시간과 출장길에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의 10시간을 비교해 보자. 이 두 '10시간'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이처럼 시간 경험과 인식은 개인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장소에 걸린 시계는 마치 시간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균일한 것인 듯한 인상을 준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 주지 못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진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베르그송은 물리적인 시간과 구별되는 **의식의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지속'이라 불렀다. 지속이란 '흐름'이다. 흘러가는 강물을 칼로 잘라서 어느 한 지점의 고정된 물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은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르그송에 따르면 흐름의 속성을 가진 시간은 단절적인 점들이 꼭 이어져 있는 선이 아니라 서로 침투하여 융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해 보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현재 포착한 친구의 모습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와 관련된 경험들이 함께 융해되고 중첩되어 있다. 이처럼 과거는 현재에 의해 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 스며들어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동일한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시간, 흐르고 침투되어 융합되는 지속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은 얼마만큼 '썼는가?', '남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하는가?'의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로 베르그송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조의 방법을 토대로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 ③ 대상의 특성을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20. 윗글에서 <보기>의 ㉠, ㉡에 각각 대응하는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 보 기 >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다고 해 보자. 이것은 앞에 들었던 음들을 기억하면서 아직 오지 않은 음을 기대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는 것은 ㉠ 꺾어져 있는 음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 그 음악의 흐름을 인식하는 것이다.

- | ㉠ | ㉡ |
|-----------|---------|
| ① 물리적인 시간 | 의식의 시간 |
| ② 물리적인 시간 | 객관적인 시간 |
| ③ 동일한 시간 | 객관적인 시간 |
| ④ 진정한 시간 | 의식의 시간 |
| ⑤ 진정한 시간 | 동일한 시간 |

21. [A]에 드러난 관점과 유사한 삶의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ㄴ. 나와 삶의 속도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ㄷ.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이 되는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ㄹ.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분초 단위로 나누어 인식해야 한다.

- | | | |
|--------|--------|--------|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 ④ ㄴ, ㄹ | ⑤ ㄷ, ㄹ | |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은 제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한다. 이때 기업은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마케팅 전략 자체의 이론적 결합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판매량이 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며, 나아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품 확장’과 ‘역포지셔닝 브랜드’라는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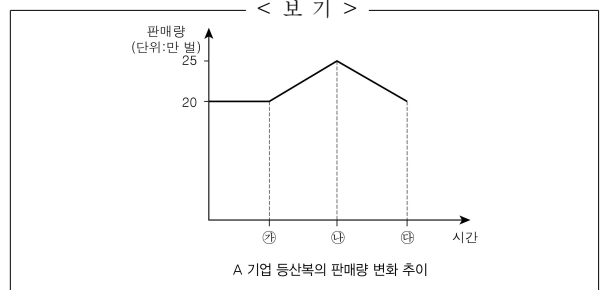
‘제품 확장’은 기존 제품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다. 이렇게 출시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되기에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제품 확장 방법은 일시적이어서 어느 정도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 경쟁 기업들과 모든 기능이 동일한 등산복 20만 벌을 판매하던 A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A 기업이 새롭게 맘을 원할하게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든다. 새로운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져 A 기업은 그 해에 25만 벌을 판매한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쟁 기업들도 동일한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들어 낸다. 그러면 A 기업의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낮아져 판매량은 줄어든다. 이에 A 기업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또다시 다른 기능을 추가한 등산복을 만들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A 기업의 등산복 판매량은 늘어나겠지만, 곧 경쟁 기업들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가진 등산복을 만들어 낼 것이다. 따라서 길게 보면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등산복 개발 비용이 상승하여 등산복 가격만 올라갈 뿐 판매량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 ‘역포지셔닝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여겨온 기능들을 과감히 삭제함과 동시에 매우 독창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소비자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능을 추가했기에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 제품의 판매량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 2000년 당시 미국의 항공사들은 모두 무료 기내식,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티켓 할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소비자들 역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 항공은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없애버림과 동시에 전 좌석 최고급 가죽 시트, 개인용 LCD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이어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고 이용 승객들을 이전보다 많이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역포지셔닝 브랜드를 사용하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다른 경쟁 기업이 따라한다면, ㉡ 결국 모든 기업이 동일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되어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 결국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느 한쪽의 전략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그때그때 바뀌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가]를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이전까지는 A 기업의 등산복이 경쟁 기업의 등산복에 대해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지 못했었군.
- ② ㉠에서 ㉢까지는 소비자들이 A 기업의 새로 만든 등산복을 경쟁 기업의 등산복보다 선호했었군.
- ③ ㉢에서 A 기업의 경쟁 기업들은 ‘제품 확장’ 전략을 사용했었군.
- ④ ㉢에서 ㉣까지는 A 기업의 등산복과 경쟁 기업의 등산복이 기능면에서 더 차별화되었었군.
- ⑤ ㉢에서 A 기업이 새로운 ‘제품 확장’ 전략을 사용한다면 등산복의 판매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었군.

23. ㉠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 기업은 차별성이 없었던 디저트 메뉴를 없애는 대신 손님 개개인의 취향에 맞춘 개별적인 주메뉴를 만들어 내었다.
- ② □□ 기업은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로부터 전자 제품을 직접 주문 받아 싸게 판매하였다.
- ③ ☆☆ 기업은 기존 세제에 정전기를 방지하는 성분을 추가한 세제를 출시하였다.
- ④ ◇◇ 기업은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언론 매체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 ⑤ ▽▽ 기업은 기존 음료에 근육 강화 기능을 첨가한 음료를 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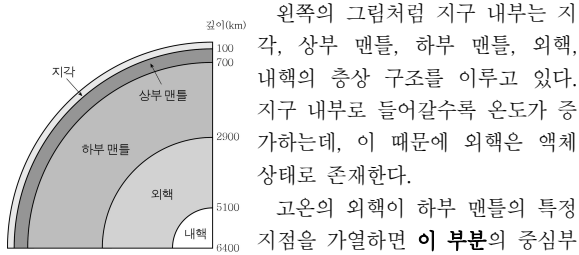
2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품의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 ② 전략 자체의 이론적 결함 때문이다.
- ③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 ④ 기존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지나치게 없앴기 때문이다.
- ⑤ 경쟁 기업이 다른 제품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는 살아 있다

지구 내부는 끊임없이 운동하며 막대한 에너지를 지표면으로 방출하고, 이로 인해 지구 표면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등의 자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현상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왼쪽의 그림처럼 지구 내부는 지각, 상부 맨틀, 하부 맨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는데, 이 때문에 외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온의 외핵이 하부 맨틀의 특정 지점을 가열하면 이 부분의 중심부 물질은 상승류를 형성하여 ㉠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주 느린 속도로 맨틀을 통과한 상승류는 지표면 가까이에 있는 판에 부딪치게 된다. 판은 매우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대한 상승류도 쉽게 뚫지 못한다. 그러나 간혹 상승류가 판의 가운데 부분을 뚫고 곧바로 지표면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곳을 열점이라 한다. 열점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 한편 딱딱한 판을 만난 상승류는 꾸준히 판에 힘을 가하여 거대한 길이의 균열을 만들기도 한다. 결국 판이 완전히 갈라지면 이 틈으로 아래의 물질이 주입되어 올라오고, 올라온 물질은 지표면에서 옆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판을 형성한다. 상승류로 인해 판이 갈라지는 이 부분에서도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

새롭게 생성된 판은 오랜 세월 천천히 이동하는 동안 식으면서 밀도가 높아지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다른 판 중 밀도가 낮은 판과 충돌하면 그 아래로 가라앉게 된다. 가라앉은 판이 상부 맨틀의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면 용융 온도가 낮은 일부 물질은 녹는데, 이 물질이 이미 존재하던 판의 지표면으로 상승하면서 지진을 동반한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녹지 않은 대부분의 물질은 위에서 내리누르는 판에 의해 큰 흐름을 만들면서 맨틀을 통과한다. 이 하강류는 핵과 하부 맨틀 경계면까지 내려와 외핵의 한 부분을 누르게 된다. 외핵은 액체로 되어 있으므로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에서 위로 솟아오르는데, 솟아오른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상승류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강류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승류가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화산과 지진 등의 자연 현상은 맨틀의 상승류와 하강류로 인해 일어난다. 맨틀의 상승류와 하강류는 흘러가는 동안 여러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이로 인해 그 흐름이 불규칙하게 진행된다. 그런데 현대 과학 기술로 지구 내부에 있는 이 장애물의 성질과 상태를 모두 밝혀내기는 어렵다. 바로 이것이 지진이나 화산과 같은 자연 현상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이다.

25. 윗글의 읽기 과정에서 떠올린 의문에 대해 글을 읽은 후에 답을 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기 전	• 제목과 그림을 보니, 지구가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겠지? ㉠ • 글을 훑어보니 자연 현상에 관한 글인 것 같은데, 이상 기온 현상의 원인도 알 수 있을까? ㉡
읽기 중	•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의 답은 무엇일까? ㉢ • 3문단의 첫 문장에서 상승류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어디일까? ㉣ • 5문단에서, 상승류가 만나는 '장애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 ① ㉠: 지구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지구 내부의 움직임과 그 움직임이 지표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글이었어.
- ② ㉡: 자연 현상 중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 수 있지만, 이상 기온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어.
- ③ ㉢: 현대 과학 기술로 맨틀의 상승류와 하강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의 성질과 상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어.
- ④ ㉣: 핵과 하부 맨틀 경계까지 내려온 하강류가 외핵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은, 상승류가 시작된 부분과 똑같은 지점이었군.
- ⑤ ㉤: 상승류의 흐름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판이 여기에 해당해.

26. 윗글에서 언급한 것은?

- ① 판의 분포
- ② 지각의 종류
- ③ 지구 내부의 구조
- ④ 내핵의 구성 성분
- ⑤ 우리나라 화산의 종류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화산'에 대해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화산] 가. 판의 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나.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지점에 위치한 일본의 화산들 다. 원래 하나였던 판이 두 개의 판으로 갈라지는 지점에 위치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화산들
--

- ① '가'의 화산은 열점 부분에서 발생한 것이겠군.
- ② '나'의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에서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 판보다 밀도가 높겠군.
- ③ '다'의 화산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생성되는 판의 밀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겠군.
- ④ '가'의 화산과 달리 '나'의 화산에서 분출된 물질에는 하부 맨틀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겠군.
- ⑤ '가'와 '다'의 화산 발생은 맨틀의 상승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로군.

28. ㉠와 바꿔 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동(可動)하기 ② 약동(躍動)하기
 ③ 이동(移動)하기 ④ 작동(作動)하기
 ⑤ 진동(振動)하기

29. 독서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이 아닌 것은?

- ① 옛 성현의 글은 꾸준히 읽어야 한다.
 ② 독서를 통해 학문적 성취에 이를 수 있다.
 ③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④ 젊은 시절의 독서 경험은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⑤ 글을 외우기만 하는 것은 뜻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희들이 10년 동안 공부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환으로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벌써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구나. 그러나 또한 하늘의 뜻이니 어찌하겠는가?

나 또한 어렸을 때 과거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너희들처럼 그럭저럭 세월만 보낸 적이 있다. 그러다가 경신년 겨울에, 『맹자』 한 권을 지니고 관악산에 들어갔다. 수개월 동안 20번에 걸쳐서 『맹자』를 읽고 나서야 겨우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수 있었다. 산에서 내려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말 위에 앉아 일절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맹자』의 ‘양혜왕장’부터 ‘진심장’에 이르도록 모두 마음속에 기록해 두었다. 그 책에 담긴 뜻과 의미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곳저곳 마음이 가는 곳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이듬해 안동 하회 마을에 내려가 지내면서 『춘추』를 30여 번 읽었는데, 이때부터 조금씩 문장의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행히 과거에 급제했다.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세월의 공력에 더해 깨닫고 얻은 것이 없다. 그때 좀더 공부해서 사서(四書)를 100여 번 읽었더라면, 내 학문의 성취가 오늘날처럼 보잘것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사서를 반드시 읽고 또 읽으라고 말하고 싶다.

요즘 서울의 젊은이들은 마치 저갯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같아서, 오로지 빨리 성공에 접근하고 성공을 구하는 기술만 찾는다. 반면 옛 성현의 글이 담긴 책들은 높이높은 다락에 묶어 처박아 두고, 매일같이 영악하게 남의 비위나 맞추는 글을 찾는다. 그리고 그 말을 도독질해 시험 감독관의 눈에 띄도록 글을 지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짓은 교묘한 방법으로 벼슬하는 자들이 삼을 수 있는 수단이지, 너희들처럼 어리석고 둔하거나 명예를 다투는 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치욕스럽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대체로 학문과 독서의 성취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고, 그것으로 성공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은 오로지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다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힘쓰고, 하늘의 뜻에 맡길 뿐이다.

- 류성룡, 「여러 아이들에게 보냄[奇諸兒]」 -

30.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저는 올해 환경 동아리 활동의 하나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 문제에 관한 책을 몇 권 골라 읽고 독서 모임을 했어요. 여럿이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도 이해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발견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처음에 환경 문제에 별반 관심이 없고 형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친구들이 독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누구보다 열성적인 환경운동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 ① <보기>는 윗글에 비해 독서를 통한 글쓴이와의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② <보기>는 윗글과 달리 타인과 교감하며 읽는 공동체적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윗글은 <보기>에 비해 여가 활용 수단으로서의 독서를 강조하고 있다.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윗글은 <보기>에 비해 독서를 통해 창의적인 생각에 이르게 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현 샷을 칸,
한 [방]에 들어서 권을 붙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좁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
하며,
딜옹배기*에 복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찌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밖에 나가지도 앓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각지 배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
질하는 것이었다.
내 가슴이 짝 메어 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팽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낮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놀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
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
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
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쫓손*에 찔랑찔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
어 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섰*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찰랑찰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였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 * 권을 붙이었다: 세를 얻어 생활하였다.
- * 딜옹배기: 둥글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질그릇.
- * 복덕불: 짚이나 풀 따위를 태워 피운 화톳불.
- * 나쫓손: 저녁 무렵.
- * 섰: '엎'의 평안도 방언.

[A]

[B]

[C]

[D]

[E]

(나)

어느 해 늦가을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부선 급행열차를 타고 있었다.

열차가 수원(水原)을 지날 무렵,
서호(西湖)에 반사된 험란한 저녁해가
차창 가득히 어떻게나 눈부시던지,

나는 골든 텔리셔스*라는
사과덩이 속을 파고드는
한 마리 눈먼 벌레가 되었다.

추수가 끝난 들녘도
있이 진 잡목숲도, 인가(人家)도
황금빛으로 무르익은 과육(果肉) 속이었다.

- 김종길, 「저녁해」 -

* 골든 텔리셔스: 노란색을 띤 단맛이 강한 사과 품종.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③ 토속적 시어를 통해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연결되고 있다.
- ⑤ 대조되는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장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2. (가)의 공간적 배경인 [방]을 [A]~[E]와 관련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화자가 가족이나 고향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② [B]: '나 혼자' 누워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뇌하는 공간이다.
- ③ [C]: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만큼 화자의 절망감이 심화되는 공간이다.
- ④ [D]: 화자가 '천장'을 쳐다보며 운명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⑤ [E]: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며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급행열차'의 속도감이 화자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어.
- ② '골든 텔리셔스'라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느낌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어.
- ③ 저녁 무렵의 아름다운 풍경이 잘 익은 '사과덩이'로 형상화되어 있어.
- ④ 차창 밖 풍경에 몰입한 화자의 모습은 '눈먼 벌레'로 형상화되어 있어.
- ⑤ '들녘', '잡목숲', '인가' 등의 대상이 황금빛의 색채로 통합되고 있어.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전 줄거리] 천자의 종매로 보국과 평국(계월)은 결혼하지만 남자인 보국은 여자인 평국이 자신보다 높은 벼슬에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한다. 이때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쳐들어오자 평국은 원수로, 보국은 부하인 중군으로 출정한다. 서울에 있는 천자가 위험해 지자 평국은 서울로 와서 천자를 구한다.

이때 천자가 보국의 소식 몰라 염려하시거늘 원수가 아뢰길,
“신이 보국을 데려오리다.”
하고 떠나려 하니 문득 중군* 보국이 장계*를 올렸거늘, 하였
오되,
“원수가 서울을 구하러 간 사이에 소신이 한번 복을 쳐 오,
초 두 왕의 항복을 받았나이다.”
천자가 원수를 보시고 왈,
“이제는 오, 초 두 왕을 사로잡았다 하니 이런 기별을 듣고
어찌 앉아서 맞으리오.”
하시고 천자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거동하사, 평국은 선봉이
되고 천자는 스스로 중군이 되어 좌우에 응위하여 보국의 진
으로 갈 새, 선봉장 평국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백마를 타고
깃발을 잡아 앞에 나가니라.
이적에 보국이 오, 초 두 왕을 앞에 세우고 서울로 향하여
올 새, 바라보니 한 장수가 모래벌판에 들어오거늘, 살펴보니
깃발과 칼 빛은 원수의 칼과 깃발이로되 말은 준총마가 아니
거늘, 보국이 의심하여 한편으로 진을 치며 생각하되 ‘적장 맹
길이 복병(伏兵)을 하고 원수의 모양을 본받아 나를 유인함이
라’ 하고 크게 의심하거늘, 천자가 그 거동을 보시고 평국을
불러 왈,
“보국이 원수를 보고 적장인가 하여 의심하는 듯하니 원수
는 적장인 채하고 중군을 속여 오늘 재주를 시험하여 짐을
구경시키라.”
하시니, 원수 아뢰길,
“폐하 하고 신의 뜻과 같아오니 그리하사이다.”
하고 갑옷 위에 검은 군복을 입고 모래벌판에 나가서 깃발을
높이 들고 보국의 진으로 향하니 보국이 적장인 줄 알고 달려
들거늘 평국이 꼭 도사에게 배운 술법을 베풀니, 눈 깜짝할 사
이에 태풍이 일어나며 검은 구름 안개 자욱하여 지척(咫尺)을
분별치 못할라. 보국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겁을 내고 있더
니 평국이 고함하고 달려들어 보국의 창을 빼앗아 손에 들고
목을 잡아 공중에 들고 천자가 계신 곳으로 갈 새, 이때 보국
이 평국의 손에 달려오며 소리를 크게 하여 원수를 불러 왈,
“평국은 어데 가서 보국이 죽는 줄을 모르고.”
하며 우는 소리에 진중이 요란하니, 원수가 이 말을 듣고 웃으
며 왈,
“네 어찌 평국에게 달려오며 평국은 무슨 일로 부르느냐.”
하며 박장대소하니, 보국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보니 과
연 평국이거늘, 슬픔은 간데없고 도리어 부끄러워 눈물을 거두
더라.
천자가 크게 웃으시고 보국의 손을 잡으시고 위로 왈,
“중군은 원수에게 욕됨을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말라. 원수 자
의로 함이 아니라 짐이 경 등의 재주를 보리라 하고 시킨
바라. 지금은 전장으로 하여금 욕을 보았으나 평정 후 돌아
가면 예로써 중군을 섬길 것이니 부부의 의를 상하지 말라.”

하시고 재주를 칭찬하시니 보국을 위로하시니 보국이 그제야
웃고 여쭙워 왈,

“하고 지당하여이다.”

하고 행군하여 서울로 향할 새, 오, 초 두 왕에게 행군 복을
지우고 무사로 하여금 울리며 평원광야에 덮여 별사곡을 지나
서울에 다다라 종남산하에 들어가, 천자 황화정에 자리 잡으시
고 무사를 대령하여 오, 초 두 왕을 결박하여 층계 아래에 꿇
리고 꾸짖어 왈,

“너희 등이 반역하여 서울을 침범하다가 하늘이 무심치 아
니 하사 너희를 잡았으니 너희를 다 죽여 일국에 빛내리라.”
하시고 무사를 명하여 문밖에 내어 목을 베어 못사람에게 보
이더라.

천자 인하여 황후와 태자를 위하여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
시고 음식으로 군사를 위로한 후에 여러 장수를 차례로 공을
쓰시고 새로 국호를 고쳐 즉위하시고 조서를 내려 만관을 뵈
어 조정위를 정하시고 보국으로 좌승상을 봉하시고 평국으로
대사마대도독 위왕 임명장을 주시고 못내 기뻐하시더라.

평국이 아뢰길,

“신첩이 분에 넘쳐 폐하의 넓으신 덕택으로 제후에 봉해지
고 관직과 작위를 입었사옵고 천하를 평정하였음에는 폐하
의 하해 같은 덕이옵거늘 어찌 신첩의 공이라 하오리까. 하
물며 친부모와 시어머니를 잃었사오니 신첩이 팔자 기박하
와 이러하오니 이제는 여자의 도리를 차려 부모 영위*를 지
키고자 하옵나이다.”

하고 병부* 열들과 원수의 도장이며 깃발을 바치고 눈물을 흘
리며 슬피 울더라.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 중군: 원수, 대장, 절도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솔하던 장수.

* 장계: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

* 영위: 상가(喪家)에서 혼백을 모시는 자리.

* 병부: 군대를 동원하는 표지로 쓰던 동글납작한 나무패.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 ② 사건 전개에 비현실적 요소를 개입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을 다각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35. 윗글의 서사 일부를 <보기>처럼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천자와 평국이 보국의 진으로 이동함.	㉡ 보국이 평국을 알아보지 못함.	㉢ 평국이 보국과 대결을 벌임.	㉣ 천자가 보국을 위로함.

- ① ㉠은 보국이 보낸 장계에 의해 이루어졌다.
- ② ㉡가 계기가 되어 ㉢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은 평국이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천자에게 먼저 제안하였다.
- ④ ㉣은 ㉢의 결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보국을 위한 것이다.
- ⑤ ㉣의 과정에서 보국은 ㉢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홍계월전」은 비록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 작품은 가부장제, 남존여비, 충군 사상 같은 유교적 이념을 기본 바탕으로 한 당대의 보편적인 삶을 드러내는 한편, 남자인 보국과 여자인 평국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남녀 차별과 같은 제약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기도 한다.

- ① 보국이 끝까지 평국의 능력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가부장적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
- ② 천자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란군이 진압되는 데에서, 충군 사상과 같은 유교적 이념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어.
- ③ 평국이 여자의 도리를 지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당대 여성의 보편적인 삶을 여전히 수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 ④ 여자인 평국이 남자인 보국보다 계급이 더 높은 것에서, 남존여비와 같은 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을 엿볼 수 있어.
- ⑤ 평국이 보국과 대결하여 이기는 모습에서, 여자의 능력이 남자의 능력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엿볼 수 있어.

[37~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출하리 물[㉠]의 가 비길하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샴공은 어딤 가고 빈 빈만 걸렸는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한더이고.
 ㉡ 모첩(茅簷)* 촌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 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는고.
 오름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꽃[㉢]쭈**를 잠깐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썸**의 님을 보니
 옥(玉) ㉣튼 얼구리 반(半)이 나마 늘거세라.
 님의 머근 말썸 슬궤장* 슬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썸인들 어이하며
 정(情)을 못다하야 목이조차 매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증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딤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쏜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서
 님 거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 정철, 「속미인곡」 -

- * 어등정: 어리둥절하게.
- * 강턴: 넓은 강가.
- * 모첩: 띠집.
- * 헤쓰며: 헤매며.
- * 바자니니: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라가라 거닐며.
- * 슬궤장: 실컷.
- * 바라 나니: 연달아 나니.
- * 오던된: 방정맞은.
- * 결의: 잠결에.
- * 식여디여: 죽어서.

(나)

㉠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블**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

* 어론 님: 정든 임.

37. (가)와 (나)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물[㉠]’을 헤매다 안타까워하고 있어. 이것은 그리운 임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 ② (가)의 화자는 ‘꽃[㉢]쭈’에서 깨어난 것을 아쉬워하고 있어. 이것은 ‘썸’ 속에서는 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거야.
- ③ (가)의 화자는 ‘낙월’이 되어 ‘창 안’을 비추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 이것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④ (나)의 화자는 ‘밤’을 ‘구뵈구뵈’ 퍼겠다고 하고 있어. 이것은 임과 함께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 ⑤ (나)의 화자는 ‘춘풍 니블’을 정성껏 만들고 있어. 이것은 임이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거야.

38. <조건>에 따라 시행을 창작하는 학습 활동을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조 건 >
- ㉠에 드러난 화자의 처지를 명확히 밝힐 것.
 - ㉡에 담긴 발상 및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침실의 환한 등불 아래에서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 ② 괴롭지만 행복한 침실에서 등불을 보며 밤을 지새웠다.
- ③ 한밤중에 혼자만 있는 쓸쓸한 침실에서 슬픔을 포개어 쌓았다.
- ④ 차가운 잠자리와 침실 벽의 등불 사이가 하늘과 땅의 거리였다.
- ⑤ 아늑한 침실 바닥에 누워 즐겁게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 해쳤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조선 현실에 별 관심 없던 동경 유학생인 ‘나’는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배에 오른다. 배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낀 ‘나’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 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감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 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네다. 하하하.”

그 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자의 상관매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 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궤자*는 병병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

구나 그들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돼질 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흥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요량 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흥……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에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

이 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만면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에 일 원서부터 이 원이니까—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일 원 오십 전으로 이 원 오십 전까지 라우. 가령 천 명만 말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이삼 삭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일 천오륙백 원, 근 이천 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 그런 벌이가 이판에 어디 있소?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 살고*로 남긴 것이 천 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 팔백 명이나 북해도 죽미(足尾) 탄광에 보내고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의 침이 없이 천 원, 이천 원을 신이 나서 너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예에, 예에, 그럴 거예요!”

하며, 일평생에 들어 보지도 못하던 천(千) 자가 붙은 돈 액수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밀었는지 그 장대한 구릿빛 나는 유착한 몸집을 벌떡 일으키어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 다시 말을 붙이었다.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냐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데다가 샅전이 헐하니까 안심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라고 폭 살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데야 제아무런 놀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헐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랐는지, 별안간에 **욕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흠치기 시작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요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급 노동자.

- * 켄자: 삼인칭 '그'에 해당하는 말.
- * 내지인: 일본인.
- * 미구불원: 앞으로 얼마 오래지 아니하고 가까움.
- * 실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이익.
- * 전차: 어떤 조건을 걸고 앞당겨 쓰는 빛.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② 주변을 관찰하며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적 배경을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으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욕탕'은 '나'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 ② '공장과 광산'은 조선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던 공간이다.
- ③ '변화한 동경, 대판'은 '나'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고통 받는 공간이다.
- ④ '촌뜨기'는 연이은 질문으로 현실 상황을 작품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새로운 '욕객'의 등장은 '나'가 옆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엿들을 수 없도록 만든다.

41.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 탄생한 「만세전」은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며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 ①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군.
- ② 생계조차 어려운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헌병, 노동자 모집원 등을 소재로 활용한 것은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노력으로군.
- ④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에 대한 '나'의 분노를 통해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군.
- ⑤ 일본인에게 쫓겨 만주로 가는 등 민족의 억압적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겠군.

42. ㉠과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 넘어 산 ② 누워서 떡 먹기
- ③ 티끌 모아 태산 ④ 금강산도 식후경
- ⑤ 언 발에 오줌 누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음그러면 저 벚섬은 오늘 저녁나절까지 신작로 둘다 리에게 있는 논임자 곳간으로 저 내어다 두게.

국서 네.

사음 그러면 한 번 더 일러두고 갈 테니 잘 명심해 두게! 작년치 떨어진 게 두 섬 여섯 말. 재작년치 떨어진 게 석 섬 두 말. 도합 닷 섬 여섯 말이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금년에 와서 갇어진 것을 털면 꼭 닷 섬 일곱 말이 떨어져 있단 말야!

말뚝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통명스럽게) 그걸 어쩌야 한단 말요?

사음 금명간에 다 해다 갇으란 말야! 이놈이 왜 어른 말하는데 쌍지팽이를 쥐고 나서? 원 버트장머리 없게?국서 잘 듣게. 대판절 이번 봄부터 내가 몇 번을 타이른 줄 알어? 명년부터서는 새로 농지령이란 게 실시된다구.그렇게 되면 실상 작인들은 살기가 좀 나아져. 그렇지만 그 대신 이번 추수까지는 여태 묵은 것은 다 팔겨 봐야지. 그렇잖으면 내년에 가서 피차에 귀찮스럽게 된단 말야. 도지*가 묵었느니, 떨어졌느니 허구 이걸 법정에 내걸더라도 말썽스럽게 되거든!

[A]

국서 그러니까 나도 여태 여쭙 게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음 지금 와서 그런 소릴 해두 소용없다니까! 나는 그저 논임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야. 만일 이번에 묵은 것을 못 갇다 갇으면 좋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사정없이 막 잘라서 최후 결판을 지어 버리고 말 거란 말야! 잘 알아 생각해!

[B]

말뚝이 아니 빠가 빠지게 농사지어 놓은 것 막 다 가져갔죠. 그러구 그게 무슨 말유? 올해가 풍년이래두 우리집에 어디 쌀 한 톨 남았나 봐요! 막 뒤져 봐요!

국서이놈 말뚝아!

사음 이 망할 자식 보게. 늙은 사람 앞에 막 삿대질을 허구 이놈이 덤비지! 에이 고약한 놈 같으니! (지팡이로 때린다.)

말뚝이 (악을 쓰고)아버지 좀 봐요. 노.....농지령이란 건 뭐야요? 그저 사람을 골릴려구! 최후 결판을 하면 어쩔 테야요? 어디 할 대루 해봐요! 응! 할래야 할 거나 있어야 말이지.

국서 (말리다가 못해 말뚝이를 헛간 밖으로 끌어낸다.) 저리 나가! 이놈 버릇없이!

사음 이런 분할 일이 있나! 그럼 못할 거라구! 두고 봐! 기둥이라두 빼어 가구 술이라두 떼어갈 테니까..... 흥 저놈의 소는 못 몰고 갈 줄 아나?

국서 소를요? 아닙니다. 저 소는 저래 배두 도 장관 나오리 한테서 일등상 받은.

사음 일등상이 뭐야! 도 장관은 다 뭐야!

처에그 살려주십시오. 그저 저놈이 미련스럽구 철이 덜 나서 그렇습네다. 네? 제발.

사음 봐요! 봐! 붙들지 말우. 참 사람 분해 죽을 일이야.....

애원하는 국서 부부를 뿌리치고 사음은 나가 버린다. 말뚝이

는 헛간 문 곁에 기대섰다.

국서 (말뚱이를 보고) 액끼 벌어먹을!

말뚱이 (슬슬 피하며) 내가 뭘 잘못했수? 백주에 그래. (퇴장해 버린다.)

처 이걸 어떡하나? 마름을 저렇게 건드려 났으니 인제 큰 일났지. 속절없이 노는 때이고 말았구려.

국서 그놈의 자식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또 샀지.

이웃 사람 영실이 조금 전부터 행길에서 이 구경을 하다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영실 헛헛헛..... 문진이가 왔으면 바로 도쳐 춘풍이란 소리를 한 마디 내걸칠 대문이로군요. 국서, 걱정 마요. 나두 금방 구경을 했지만 이런 싸움이 이 동리에서도 하루에 몇 차례씩 있는 걸. 그야말로 될 대로 되겠지. 응?그리고 지금 나는 읍내에 갔다 오는데 자네 아우가 읍에서 자네더러 좀 와 달라구 그랬수.

국서 나를?

영실 아마 무슨 돈 꾸어 쓰는 일 때문에 그러나 봐. 나는 바빠서 가요. (그만 퇴장)

국서 또 무슨 까다로운 일이 생겼나? 웬일이야? (방으로 들어간다.)

처 읍에 가 보시려우 지금? (방 안을 들여다보고) 부대를 때에 뭘 좀 사오세요. 마름한테 보내게. 암만 생각해두 걱정이어요. 금방 그 양반이 그렇게 노허구 가서! 코 아래 진상이라두 해 놔야 해요. 그래야 좀 맘을 놓지.

- 유치진, 「소」 -

* 사음: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마름.

*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고 그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43. 등장인물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사음'은 여러 인물과 대립하며 극적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
 ㄴ. '말뚱이'는 '사음'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ㄷ. '국서'는 '말뚱이'를 제지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ㄹ. '처'는 '국서'에게 반발하여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4.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척하며 회유하고 있다.
 ② 의문점을 제기하며 문제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③ 장차 벌어질 상황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④ 사회적 연륜을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다.
 ⑤ 법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45. 윗글의 내용 중 <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희곡에서 어떤 사건은 무대에서 실제 장면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인물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 ① 말뚱이가 국서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것.
 ② 국서 아우가 읍에서 영실을 만나 부탁하는 것.
 ③ 국서가 작년, 재작년에 도지의 일부만 치르는 것.
 ④ 사음이 봄에 국서에게 묵은 도지를 갚으라고 말하는 것.
 ⑤ 동리 사람들이 도지를 치르는 일을 두고 사음과 다투는 것.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